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영광, 청년정책 본격화

군, 4개 분야 51개 사업 확정...102억원 투입 일자리 창출...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영광군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영광’을 목표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영광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참여와 소통,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51개 사업에 총 102억원을 투입한다.

참여·소통 분야에는 11개 사업에 12억원이 편성됐다. ‘e-모빌리티 특화 미래인재 과학축전’과 ‘청년 영농정책 소모임 활

성화 지원’이 신규로 추진되며, 청년 명예 부군수제 운영, 청년 전용 예산제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 청년활력사업 등을 통해 군정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19개 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와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 청년 팝업스토어 운영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취·창업 기회를 넓힌다.

청년문화 분야에는 6개 사업에 12억원

을 배정했다. 청년의 날 행사 확대, 작은 미술관 및 영광문화예술촌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청년복지 분야에는 가장 많은 48억원이 편성됐다.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과 ‘영광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청년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원 사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영광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제공=영광군



경기도 안성시에서 방문한 가족 관광객이 ‘나주 1박 2득’ 인센티브를 받고 나주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1박하면 두 배 혜택”...‘나주 1박 2득’ 1호 탄생

14만원 지급...‘나주방문의 해’ 체류형 관광 시동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첫 지급일 기준 총 5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호 인센티브 수령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방문한 6인 가족 관광객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

을 방문해 총 14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가족은 황포돛배 체험을 비롯해 국립나주박물관, 금성관, 빛가람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나주의 역사와 자연, 도시 경관을 체험했다.

가족 대표로 인센티브를 받은 이상영씨는 “아이들과 처음 나주를 찾았는데 관광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어 놀랐다”며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준비를 많이 했다

느낌을 받았고,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나주 1박 2득’은 타지역 관광객이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는 나주시사랑상품권(현장 지급) 또는 나주몰 포인트(온라인)로 제공된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해 가족 단위 체류 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는 숙박과 관광을 연계한 소비 구조를 통해 외지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과 관광을 결합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당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며 “관광객이 나주에 머무르고 소비하는 구조를 확대해 ‘500만 나주관광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금오도·남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공사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 선정

한국관광공사 주관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에 여수 금오도·남도 2개섬이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류형 섬 관광콘텐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실증 사업으로 섬별 여행사·관광벤처 등 2~3개 기업을 매칭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이를 통해 섬 관광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생 기반의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오도와 남도에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아도터 활동과 마을 기반 체험, 위케이션·오토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둘레길·카약, 로컬 파파티 등 다양한 체험과 소비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 매칭을 확정하고 선정된 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단계적으로 실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여수 섬 관광을 체류형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금오도와 남도가 가진 매력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에는 여수(금오도, 남도)를 비롯해 화성(제부도, 국화도), 보령(원산도), 통영(용호도, 상도), 서귀포(가파도) 등이 선정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 금오도·남도 2개섬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제공=여수시

곡성,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

내년 10월 청년하우징타운 준공 목표

곡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서는 군과 군의회 관계자, 지역 청년단체 관계자 등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시작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은 주거비 부담

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을 읍내리 49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총 55호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은 청년형(전용면적 37㎡) 25호, 신혼부부형(전용면적 59㎡) 30호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진도, 주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온열 질환·한랭 진단비 포함

진도군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주민안전보험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진도군민은 주민안전보험을 통해 450건, 총 9억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 주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지난 해와 동일한 40개 항목에 온열과 한랭질환 진단금이 각각 30만원씩(연간 1회) 추가돼 총 42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다른 보험의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되며, 올해 보험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관’ 촉구 서명운동 전개

문화유산·환경 등 보존...행정서비스 제공

고흥군은 소록도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소록도 전역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 관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주민 생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경 자원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록도 방문 당시 공영민 고흥군수의 건의를 반영해, 병원의 지역적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관계 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군은 소록도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통해 병원 구역에 제외한 국유지를 직접 양여 받아 지방정부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문화유산과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소록도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의 배너 링크, 정보누리(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소록도 관리권 이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확고한 의

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소록도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3월을 서명운동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소록도에는 32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진행된 주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전체 주민의 79%가 고흥군으로의 관리권 이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소록도는 한센인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공존하는 보존과 치유가 필요한 공간이다”며 “이러한 소록도의 귀중한 역사적·자연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로 소록도 주민에게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흥군으로의 조속한 관리권 이관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목포해양, 해양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짙은 안개기간 도래로 인해 해양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경은 단순 계도보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선정원을 초과해 과승·과적 운항, 화물·어획물 고박지침 위반, 허가된 항해구역 이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음주운항 등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들이다.

해경은 해역별 특성에 맞춘 수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주영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